

도서대여점의 원조 '貫冊家'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도서대여점 때문에 출판계를 비롯해 잡지계, 서점계가 논란에 휩싸여 있는 듯한데, 이 도서대여점의 문제는 조선시대에도, 그때는 貫冊家라 이름하긴 했지만, 어쨌든 문제가 됐던 것 같다.

최근 한국고소설연구회에서 펴낸 「古小說의 著作과 傳播」(아세아문화사)에 수록된 김종철씨의 「장편소설의 독자층과 그 성격」이란 논문이 그같은 사정이 감깐 언급된다. 조선시대 장편소설의 유통과 독서양상을 집중적으로 규명하고 있는 이 논문에서 필자 김종철씨는 筆寫, 借覽과 함께 당시에 성행했던 소설유통방식의 하나로 「貫冊」을 꼽고 있다. 그에 따르면 「세책업은 수요에 비해 시장을 통한 소설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설을 상품으로 하여 등장한 업종으로, 소설을 즐겨 읽는 독자가 지속적으로 소설을 공급받을 수 있는 중개소가 되었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도서대여점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세책가가 문제적 현상으로 거론된 까닭은 오늘날 도서대여점의 그것과 사뭇 다르다. 김종철씨가 인용한, 실학자 이덕무 및 영정조시대의 명재상 채제공의 글을 다시 인용하면 이렇다.

諺傳傳奇를 탐독해서는 안된다. 집안일을 내버려두거나 여자가 할 일을 게을리 하며, 더욱이 돈을 주고 빌려보는 데 빠져들어서는 家産을 기울인 사람도 있다.(이덕무의 「士小節」 중에서)

가만히 살펴보니, 요즘 세상에 부녀자들이

서로 다투어가며 일로 삼는 것은 오직 稗說 읽는 것이다. 폐설은 날로 달로 늘어 그 종류가 수백 수천에 이른다. 책가(세책가)에서는 이를 깨끗이 베껴 빌려주고는 값을 거두어 이익을 취한다. 아녀자들은 식전도 없이 비녀나 팔찌를 팔거나 또는 빚을 얻어서라도 다투어 빌려와서는 긴 날의 소일거리로 삼는다.(채제공의 「女四書序」 중에서)

위의 「언변전기」 「폐설」은 모두 소설을 가리키는 말로, 결국, 여성들이 세책방에서 소설 빌려 읽는 데 빠져 가사를 돌보지 않거나 집안이 낭패가 되는 세대가 문제라는 지적인데, 이는 요즘의 도서대여점 논란이 관련 업계간 밥그릇싸움에 기인하는 경제적 측면이 강한 데 비하여 대단히 「도덕적」인 문제제기라 할 수 있다.

이같은 세책가의 구체적인 모습은 19세기 말 프랑스 외교관으로 서울에 와 있던 모리스 쿠랑의 「韓國書誌」에 이르러 비로소 잘 드러난다.

세책가도 상당수 있는 바, 여기에는 특히 소설책이나 창가책 같은 범속한 책들의 印本 또는 寫本이 갖추어져 있고, 대개는 한글로 씌어진 것들이다. 이런 집의 책은 서점에서 팔고 있는 것보다도 더 잘 간직되고 또 종이도 좋은데다가 인쇄한 경우가 많다. 책을 빌리는 값은 때 싸서 하루 한권에 10분의 1, 2문(文) 정도이며, 때로는 현금이나 물건을, 이를테면 돈으로 몇냥, 물건으로 화로나 남비 따위를 보증으로 받는 일도 있다. 이러한 장사가 전에는 서울에 아주 많았으나 이제 편

희귀해졌다고 한국사람들이 내게 말해줬는데, 시골에, 즉 송도, 대구, 평양 같은 대도회에도 이런 세책가가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이 직업은 이익은 박하지만 점잖은 일로 인정되어 있는 까닭에 영락한 양반들이 자진해서 택하는 생업이 되었다.

한편, 세책가의 규모에 대해서는 최남선의 다음과 같은 기록이 흥미를 끄는데, 이를 보면 오늘날의 웅만한 도서대여점과 맞먹는 장서를 갖춘 세책방이 백여년전에도 이미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 아마 경성에만 있는 듯한 세책가란 것이 있으니, 곧 대소장단을 물론하고 무릇 대중의 흥미를 끌만한 소설 종류를 등사하여 3, 40장씩 한권을 만들어 많은 것은 수백권 한질, 적은 것은 2, 3권 한질로 하여, 한두 푼의 세전을 받고 빌려주어서 보고는 돌려보내고 돌아온 것은 또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조직으로 한창 성서에는 그 종류가 수백종 누천권을 초과하였습니다. 수십년전까지만 해도 서울 香木洞이란 데-시방 黃金町 一丁目 사잇골-에 세책집 하나가 남아있었는데, 우리가 조만간 없어질 것을 생각하고 그 목록만이라도 적어 두려 하여 세책 목록을 베껴둔 일이 있는데, 이때에도 실제로 세 주던 것이 총120종 3221책(같은 것이 13종 49책)을 셈하였습니다.(「조선의 가정문학」 중에서)

출판저널

통권 제152호 / 1994년 7월 5일 발행

발행인—정진숙
편집인—전병석
인쇄인—이일수
편집위원—권영빈 김문환
 송상용 이중한
편집부장—강철주
기자—정혜옥 이성수
 김중식 배은희
디자인—윤정자
사진—김홍진

업무차장—윤동호
업무·광고—이희천 최병천
 김유희 김동필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재)한국출판금고
인쇄처-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타이피아

출판저널-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출판저널」은 서평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매호 「독자서평」을 고정란으로 두고 있습니다. 신간 가운데 감명깊었거나 값싸다고 생각되는 책을 골라 서평 형식으로 정리한 글을 보내 주십시오. 원고 분량은 2백자 원고지 6매 안팎이며 책명과 저·역자명, 출판사명 등을 명기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심사를 거쳐 본지에 게재되며 교료도 따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출판저널」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치 구독료 3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택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붙임하거나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정신세계사
전화 733-3136/팩시 739-8791

“당신의 팔을 잘라 던져 주십시오.”

“달마가 중국 사람이 아니요?”

달마의 이름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그가 어떤 삶을 살았으며,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말들을 남겼는지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심지어 달마가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까지 있다. 달마는 인도 사람이었다. 1,400년 전의 인도 사람 달마가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주목받는가?

“혜가는 왜 팔을 잘라 던졌나?”

중국 사람 혜가는 달마의 제자가 되기 위해 자기 팔 하나를 잘라 달마 앞에 던졌다. 그는 목까지 잘라 던지려고 했다. 그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그리고 목숨보다도 소중한 진리를 다름 아닌 달마를 통해서 엿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1,4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달마가 설파한 충격의 진리는 조금도 퇴색하지 않았다.

“팔 하나와 바퀴도 아깝지 않을 책”

놀라운 해박함, 예리한 통찰력, 번뜩이는 기지로 위대한 스승들의 가르침을 강의해 온 현대의 성자 오쇼 라즈니쉬-그가 흥미로운 일화들을 곁들여 20세기의 말로 풀어낸 <달마>! 소설처럼 흥미진진하게 읽다 보면 달마의 진면목이 선명해지고, 팔 하나와 바퀴도 아깝지 않을, '나 자신'에 대한 커다란 발견과 마주친다.



■ 616면/값 12,000원/서점에 있습니다.

라즈니쉬의 달마어록 강의/루시화 엮음

달마